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가을 단풍의 정취... 다음달 6일 전후 무등산·내장산 절정



지리산 뱀사골 계곡



내장산 백양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가족과 함께 가을 정취를 느끼면서 걸을 수 있는 국립공원 단풍길을 선정, 발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발표한 '걷기 좋은 국립공원 단풍길 10선'은 경사가 완만한 산책길로 등산보다는 가벼운 나들이를 하기 좋은 구간이다.

공단이 꼽은 단풍길은 ▲지리산(직전마을~삼홍소) ▲내장산(가인주차장~백양 탐방지원센터~백양사) ▲설악산(설악동 탐방지원센터~비선대) ▲속리산(법주사~세심정) ▲월악산(만수계곡 자연관찰로) ▲치악산(구룡사~세림폭포) ▲덕유산(구전동~백련사) ▲북한산

(우이동 탐방지원센터~교현리) ▲한려해상(북곡2주차장~보리안) ▲주왕산(절골탐방지원센터~대문다리) 등 10개 구간이다.

10개 구간 길이는 편도 1.8~4km가량,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최대 3시간 30분 정도다. 단풍을 제대로 감상하려면 걸

을 수 있는 탐방 적기는 지리산의 경우 23일부터 이달 말까지, 내장산은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지난달 말부터 설악산을 물들인 단풍은 이달 하순 내장산, 무등산국립공원으로 내려간다. 산 전체 면적 가운데 80%가 물들었을 때 단풍이 절정이라고 하는

데, 무등산과 내장산의 경우 단풍 절정 시기는 다음달 6일 전후로 예상된다.

일교차가 커지고 일몰시간이 빨라지는 가을철 산행은 안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쌀쌀한 날씨에 대비해 복장을 다시 살펴보고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등 저체온증 예방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

산행 전 스트레칭 등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고 2인 이상 동반 산행을 하는 게 좋다.

산행이 끝날 때까지 체력의 30%는 비축하고 산행 중 가슴이 답답하거나 식은 땀이 날 경우 휴식을 충분히 취해야 한다. 음주 산행은 안전사고의 주원인이므로 피해야 한다. /김형호기자 khh@

원전 용역 근로자 피폭량 정규직의 8배

한빛원전 비정규직 비율 최고

CCTV 45.3%는 저화질

“인력 안정·장비 보강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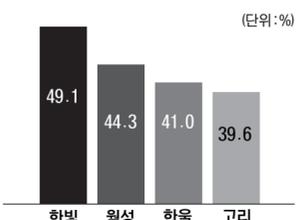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 인원 10명 중 4명은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정규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이며, 이들의 방사능 피폭량은 정규직의 8배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국내 4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CCTV 3대 중 1대는 얼굴 식별도 어려운 정도의 저화소, 노후 장비여서 교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전 근로자 절반 ‘용역업체 소속’=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빛원전 근무 인원 2960명 중 한수원 소속 정규직원은 1508명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49.1%에 달하는 1452명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으로, 한빛원전은 월성·고리·한울 등 국내 원전 4곳 가운데 정규직 대비 용역업체 직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고리원전은 정규직 2338명, 용역업체 소속 1534명(39.6%), 월성원전 1620명, 1287명(44.3%), 한울원전 2136명, 1485명(41.0%)이었다. 국내 원전 근로자 가운데

■ 국내 원전 4곳 용역업체 직원 비율



■ 업무중 평균 피폭량 비교



10명 중 4명은 한수원 직원이 아닌 외부 용역업체 소속으로, 위험성을 안고 가동되는 원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규직 비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피폭량을 비교하면 한수원 직원보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이 월등히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당 기간 한수원 직원들의 평균 피폭량은 0.11 mSv인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평균 피

폭량은 0.97mSv로 약 8.8배 차이가 났다.

한수원 정규직의 경우 지난 2011년 1인당 평균 피폭량이 0.15mSv에서 올해는 0.06mSv로 감소했다. 반면 용역업체 직원들의 피폭량은 같은 기간 1.06mSv에서 0.73mSv로 소폭 감소했으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일반인의 피폭량 한도인 1mSv를 넘은 이도 무려 2182명(14.6%)에 달했다.

이찬열 의원은 “원전의 특수성, 위험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 비율이 너무 높다. 안전 관련업무, 위험업무 종사자 등은 조속히 정규직화해 고용 보장 등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의 피폭량 차이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괜찮다고 할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전 CCTV 3대 중 1대 ‘얼굴 구분도 못해’=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빛·고리·월성·한울 4개 원자력발전소에 설치된 1063대의 CCTV 중 34.3%인 365대는 41만 저화소 장비였다. 100만 화소 CCTV는 16대(1.5%)였고, 비교적 고화질인 200만 화소

CCTV는 전체의 64.1%인 682대였다.

한빛원전의 경우 CCTV 258대 가운데 41만 화소는 117대, 200만 화소는 141대로 파악됐다.

원전은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제공항 등과 함께 국가보안목표시설 ‘가’급으로 지정된 주요시설이다. 주요시설인 만큼 152억 원을 투입해 CCTV 1063대, 출입 통제시스템 12개소 등 보안장비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41만 저화소 CCTV가 3대 중 1대 꼴이고, 이마저도 설치된 지 5년 이상 된 노후장비로 해안가 특성상 해풍과 바닷물의 영향으로 인해 내구 연한이 더 짧아진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원전은 바다와 인접해 유사시에 인근지역 관공서와 유관기관의 방호지원, 피해복구 지원이 제한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에 대비한 훈련과 장비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민경욱 의원은 “원전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에너지원이고, 핵심시설인 만큼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보안시설 강화를 통한 테러 사전 예방과 사건 발생 시·군과 경찰, 소방요원들 간에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남생이 월출산 서식지서 자연부화 첫 성공

국립공원관리공단



단은 멸종위기 야생생물(II급)인 남생이 새끼(사진) 11마리가 월출산 국립공원에 마련된 서식지에서 자연부화를 통해 태어났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남생이 자연부화에 성공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지난 2015년 남생이 알컷 2마리를 월출산 내 대체 서식지에 풀어놓고 서 동면과 출산을 유도한 결과, 그 중 알컷 1마리가 지난 5월 새끼 11마리를 낳았고 지금까지 환경에 잘 적응해 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앞서 지난 2012년 국내산 남생

이 9마리를 확보해 증식 연구에 들어갔다.

올해까지 인공부화로 13마리가 태어났고, 지난 5월 월출산에서 자연부화로 11마리가 태어났다. 이로써 증식에 성공한 국내산 남생이는 총 24마리다.

자연에서 부화한 남생이 새끼 11마리는 현재 평균 크기가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약 3.4cm 정도다. 몸무게는 10~14g.

남생이는 자라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수성 거북이었지만 잘못된 보살핌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잡식성으로 수초를 비롯한 곤충류, 다슬기, 어류 사체 등을 먹는다. 4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11월에 동면한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저수지, 연못 등에 주로 서식한다. /김형호기자 khh@

지리산권 8개 자치단체 업무협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서울시 도봉구 북한산생태탐방연구원에서 지리산권 자치단체(전남·전북·경남도, 남원시, 구례·하동·산청·함양군)와 ‘지리산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사업 및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리산권 자치단체는 2017년 지리산국립공원 지정 50

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운영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지리산을 매개로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상생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3개도, 5개 시군이 화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협약기간은 10년이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대단위 APT 밀집지역 **근린상가**

-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 7층 건물 중 701호 (7층 전체)
130평 (실형 89평)
- 대형주차장, 4면유리, 전망최고
- 감정 / 시세 - 7억
- 매매 - 5억 6천만원
- 용자 - 4억 2500만원
- 보 5천만원에 월세 200만원 보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속 박

호텔급 대형 모텔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객실 58개
- 시세 / 감정가 - 15억
- 동업 / 투자 / 매매 - 협의
- 경매로 7억 3000만원에 낙찰
용 6억 3000만원만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공사비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20억 이상 매매 가능
- 소유자 H. 010-3605-5000

토지매매, 20억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
외 13필지 / 담양댐 하루 바로 옆
- 토지 6000평 / 계획관리지역
- 시세 - 33억원
- 기한 - 10월 31일까지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담양온천 1분 거리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자

- ▶비법 배우실 분!
특수물건만 취급
교육비 등 1200만원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 ▶투자 하실 분!
공동 투자 가능
연 20% 수익 보장

(주)오천경매
H. 010-3605-5000